

융합시대에서 문화 혼종성의 순기능 고찰 - 한류 콘텐츠의 확산을 중심으로 -

노창현*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

e-mail : soulriff@naver.com

A study on positive function of cultural hybridity in the convergence era

Chang Hyun Noh*

*Graduate School of Mass Communication & Public Relations, Konkuk
University, Seoul

요 약

오늘날 중요한 문화 흐름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주체 간 융합의 과정과 그 결과물로서의 문화콘텐츠를 통해 문화 혼종성 개념의 특성을 파악하고 한국은 물론 국제적 범위로 확장되고 있는 한류의 확산 과정에서 해당 개념의 순기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서론

오늘날 융합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낯선 기표가 아니다. 지역, 인종, 세대, 성별 등을 불문하고 사회 전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융합의 과정은 특히 문화콘텐츠를 통해 극대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문화 혼종성은 융합시대의 문화 교류와 새로운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필수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한국의 경우 한류(韓流)라는 문화 현상을 통해 다양한 유무형의 가치를 생성시키고 있는 바, 한류 문화의 변화 과정 속에서 문화 혼종성의 긍정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해 고찰해 보는 것은 생산적인 문화 담론 분석이 될 수 있다.

2. 융합시대의 도래와 확장

인류의 역사를 통해 문명의 진화과정을 살펴보면 고대부터 중세 이전까지는 주로 신의 능력과 계시에 의존하는 시대였다. 인간은 신(神)이 창조하고 발전시킨 세계의 충실한 이행자로서의 역할에 머물렀다. 인간을 중심으로 사고하기 시작했던 중세에 들어오면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생산되었으나 극히 제한된 부류의 사람만이 정보를 소유할 수 있었던 시대가 되었다. 한 사람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소유하고 활용하는 이른바 전지적 능력의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러나 근대로 오면서 사회가 팽창하고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정보가 쌓이고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물리적, 화학적 분화(分化)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각자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들이 합쳐져 신속한 결과를 내던 방식은 20세기 후반부터 ‘디지털’, ‘뉴미디어’라는 기술기반의 개념들이 우리 일상에 진입하면서 급

속한 탈(脫)분화를 통한 새로운 조화, 즉 융합의 시대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융합시대는 이중 간의 ‘차이’와 ‘구분’을 지양하고 경계를 넘나들고, 때로는 그것을 전복, 파괴하며 새로운 형태의 문명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다양한 뉴 미디어의 출현과 향유의 편의성 등으로 물리적, 의식적 경계가 무너지거나 확장되고 있는 융합문화는 분화를 통해 탈근대의 벽을 넘은 인간에게 새로운 가능성으로 다가오며 지속되고 있다.

3. 문화 혼종성의 긍정적 적용

한편, 혼종성(hybridity)은 20세기 중반까지 혼혈을 의미하는 생물학적 개념이나 이로 인한 순수/비순수의 구분 등에 사용되던 기표였으나 오늘날은 급속히 변화, 융합하고 있는 문화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탈식민주의 연구자인 호미 바바(Bhabha. H)는 혼종성에 대해 문화의 특성상 통일적이고 확정적인 경계와 함께 전승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차이들이 벌이는 교섭(negotiation)의 장(場)’으로 인식한다.[1] 이때의 혼종성은 각각의 문화가 해당 사회와 세계에 평등한 위계로 병립하고 있는 ‘다문화(multi culture)’로서의 이상적 조합 원리가 아니라 유동적, 가변적 문화융합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는 민족주의나 구조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문화예술의 순수성과 고유성, 심미성 등 자신과 다른 문화와 구별짓는 다양한 타자화의 징표들과는 대립되는 개념으로 문화적 정체성의 경계성, 중층성, 양가성, 다양성 등 현대사회를 해석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문화영역에서 융합하는

문화콘텐츠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도구로 사용가능하다.

물론 혼종성이라는 기표 자체에서 오는 문제, 즉 모든 문화는 혼종적 성격을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기에 동어반복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 또한 지나친 개방성으로 인해 거대 기업의 산업적 논리에 무비판적으로 포섭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거론되고 있다.[2] 이러한 비판적 관점은 문화나 문화콘텐츠의 혼종성을 배제와 부정(否定)의 근거로 단정 짓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향유와 콘텐츠 기획에서 각각 비판적 향유 자세와 기획과정에서의 유의점으로 보완, 발전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기에 중요하다.

이처럼 혼종성은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며, 융합시대에 맞는 개방성과 결합성을 그 특성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4. 한류 콘텐츠의 진화와 문화혼종성의 순기능

한류라는 기표는 더 이상 특정한 순간, 일시적으로 주목받는 단일한 콘텐츠나 인기 스타 등의 특수성으로만 사용되지 않는다. 2000년대 이후 확장되고 있는 한류는 이제 아시아라는 경계와 드라마나 대중음악 위주의 분야별 한계를 넘어 문화 전반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목격하게 된다.

문화적 특성이 비슷한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위주의 한류 확산이 그동안 '문화적 근접성(Cultural proximity)'의 관점에서 비교적 설득력 있게 설명되어 왔고, 일본과 중국의 경우 각각 '향수'와 '질투'의 중간지점에서 한국문화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향유되었던 측면이 다분히 존재한다.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문화나 스타들의 위상변화와 한류의 지속적 확산은 문화적 근접성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구 중심적인 문화 지배 이론으로서 기존의 문화제국주의적 관점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이처럼 오늘날 한류는 일방적 전달 개념의 문화제국주의나 유사한 문화권 사이의 유사성으로 해석한 문화적 접근성을 넘어 다양한 플랫폼과 디바이스들이 향유의 흐름을 변화시키고 있는 뉴미디어 시대에 상호소통적인 교환체계를 갖는 문화 네트워크 모델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문화 혼종성은 뉴미디어 시대에 긍정적 가능성을 갖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초창기 한류처럼 단순한 상업적 목적과 일방적 해외진출의 시기를 지나 문화콘텐츠를 통한 유무형의 가치를 전달하고, 동시에 해당 국가나 문화권에 대한 인식제고와 교류 확장의 소통적 문화관계의 차원을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혼종성은 문화의 전파뿐만 아니라 문화의 이해와 교류를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류의 확산은 문화동질화시대에서 문화혼종화시대로 전환되는 융합적 경계파괴와 혼종적 결합이 동시적으로 구현된 문제적 문화담론임에 틀림없다. 외국인들이 방탄소년단의 노래가사를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된 동영상으로 관람하며 열광하는 것을 단지 미디어 기술의 편리함 때문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음악

성과 안무에만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낯선' 한글 가사를 습득하여 동감(Sympathy)의 차원에서 공감(Empathy)의 차원으로 승화되어 방탄소년단과 한류를 재정의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의 세계 곳곳의 향유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그들만의 '아미'도, '아시아', '한국', '꽃미남' 등의 기존 경계도 넘어선 'BTS'라는 혼종적 문화콘텐츠 자체를 즐기는 융합문화의 주체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융합시대의 문화혼종성은 다양한 기술발전의 토대와,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 등으로 인해 단순한 상업적 '성공'의 차원을 넘어 진정한 문화적 '이해'의 차원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미디어가 발달하고, 세계화의 징후들이 현실 삶에 깊숙이 자리 잡은 오늘날, 문화 혼종성 개념은 좁게는 국제적 영향력을 미치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한류라는 현상의 주체인 한국인에게, 넓게는 융합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유용한 해석의 틀로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 글로벌 문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가 순수하게 보존되고 개별적으로 병립하여 세계를 구성한다는 다문화주의의 논리적 강박으로부터 유연하게 해 줄뿐만 아니라 가속화되고 있는 융합문화의 결과물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도 유용하기에 더욱 중요한 개념이 된다.

이제 모두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악을 들으며 같은 춤을 시대는 지나갔다.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 더 나아가 하나의 세계라는 말도 관념적이고 비현실적인 개념이 되고 있다. 맥락과 기호에 따라 지구 반대편 사람들끼리도 언제든 모일 수 있고, 동시에 상황과 시기, 문화적 트렌드에 따라 동일 시간, 공간의 사람들도 곧바로 흩어질 수 있는, 세계와 주류문화의 복수화(Pluralization) 시대가 된 것이다. 이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미디어 기술의 경계도, 글로벌과 로컬의 물리적 경계도, 한국인 혹은 백인, 흑인 등의 인종적 경계도, 신문화와 전통문화의 역사문화적 경계도 넘어선 다양성의 사회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류뿐만 아니라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문화의 흐름이 곳곳에서 지속되고 있고, 다양한 주체들 간의 융합과정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적응을 시도하는 문화 혼종성의 긍정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 [1] 박민수, "문화혼종성의 이론적 고찰," 인문학논총, 제 39집, pp. 30, 2015.
- [2] 김수정, 양은경, "동아시아 대중문화물의 수용과 혼종성의 이해", 한국언론학보, 50권1호, pp. 120 채구성, 2006.